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윤석주*, 김연식**

강원관광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on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Seok-Joo Yoon*, Yeon-Shik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ork Services, KangWon Tourism College*

Planning and Policy Manager, Institute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인의 절수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 시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beta = .627, p < .001$)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절수마인드는 자녀의 절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 < .001$). 또한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파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요금 4만 원대 이상이 그보다 요금이 낮은 경우보다 부모의 절수마인드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절수마인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청소년 시기 부모의 물 절약 의식 및 실천행동의 자녀교육 효과성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물 절약, 절수 마인드, 절수 인식, 청소년기, 자녀교육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on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positively affected one's water-saving consciousness($\beta = .627, p < .001$) and one's water-saving mind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and intention to emphasize water saving for their children($p < .001$). Also, education, occupation, type of residence, monthly water 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between-group differences of one's water-saving mind and women's water-saving mind were higher than men's.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confirming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education for child in home by verifying the effect of parents' water-saving mind in adolescence on children's water-saving consciousness.

Key Words : Water Saving, Water-Saving Mind, Water-Saving Consciousness, Adolescence, Child Discipline

1. 서론

최근의 물 절약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89.8%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61%가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계 평균 대비

국민 개인의 물 소비량이 과다하다는 인식은 74.1%로 높

Received 8 December 2015, Revised 15 December 2015
Accepted 22 December 2015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았으나, 평소 물 절약 행동을 실천한다는 응답은 43.6%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포커스컴퍼니, 2015)[1].

이처럼 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실제 절약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 물 절약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의 물 절약 습관과 절수 마인드도 자녀의 절수 인식과 물 절약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절수 인식 형성에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절수 마인드

절수(節水, Water Saving)란 물을 아껴 쓰는 것으로 절수 마인드란 물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 및 절수 의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2001)의 가정의 물 절약 실천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정부의 물 절약에 동참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49.7%, 적극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17.8%,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24.4%,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실천하지 못했다가 6.7%로 물 절약 실천의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물 절약 실천의지가 높았고,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적극적 실천의지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극적인 의지가 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물 절약 실천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거주자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실천의지가 더 높았다.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가 전/월세 거주자보다 물 절약 대책에 더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가구구성별로는 3세대 가구의 실천율이 71.6%로 가장 높은 반면 독립세대는 57.9%의 실천의지를 보여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물 절약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2.2 청소년의 절수 인식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의 교육영역은 의 자연환경, 인공 환경, 인구, 산업화와 도시화, 자원, 환경오염, 환경보전대책, 환경의생, 환경윤리, 지속가능한

개발, 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 에너지의 11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에너지관련 교육의 비중은 1.33%, 소비생활은 11.8%로 나타났다(강병욱, 2006)[3].

에너지 절약 교육의 목적은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위 목표는 인식과 감수성 함양, 지식 획득, 긍정적 태도 개발, 정보수집, 능동적 참여 유도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이준규, 2003)[4].

비록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에너지 절약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이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물 절약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절수 의식을 고취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강병욱(2006)은 이러한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모듈별 프로젝트 과제 추진, 에너지 절약 실천대 조직·운영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개발을 제안하였다[3].

이한분(2007)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96.2%가 자원 절약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에너지 절약 실천도는 70.7%가 보통 이상, 수돗물 받아 쓰기는 63.1%가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절약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체험활동(54.1%)이었으며, 에너지 절약 교육활동 참여의향은 69.4%, 에너지 절약 체험활동의 자녀 실천 도움 정도는 7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부모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5].

비단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과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가치관 및 생활습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해영(2000)은 환경교육의 내용 선정은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아동의 주위 환경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교육은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협조를 위한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청소년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가정에서의 물 절약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김수경(200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이 만 5세 학급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4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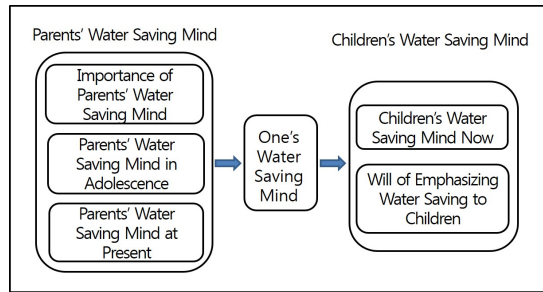
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육에 참여한 유아와 부모의 환경 친화적 생활습관 형성 정도가 높았으며 하위 영역인 절약, 재활용,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7].

강병욱(2005)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활동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 효과를 검증한 결과 참여 초등학생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인식도,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의 이해도, 에너지 절약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도, 에너지 절약 체험활동 참여도,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 형성 정도(물 아껴 쓰기 34.2% 향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에너지 절약 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협력도 향상,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 정도 향상,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 형성(물 아껴 쓰기 38% 향상)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3].

홍윤선·손장호(2010)의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3점 만점에 한국이 물 부족 국가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2.67점,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2.49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목욕물(58.7%), 빨래물(15.7%), 설거지(10.6%), 변기(6.3%), 세숫물(3.5%), 식물(1.2%) 순으로 물 사용량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물의 중요성 인식 정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4.47점으로 높았다. 생활에서의 물 절약 실태를 보면 변기의 물 절약 기구(벽돌 등)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3.9%, 수도물 절약 기구(물 조리개 등) 사용은 35%, 샤워 물 절약 기구(절수형 샤워헤드 등) 사용은 29.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세탁 시 행굼 물 재사용은 5점 만점에 평균 2.52점, 빨랫감 모아 빨기 정도는 평균 4.05점, 양치 시 컵에 물 받기 정도는 평균 3.89점, 설거지 시 물 받기 정도는 평균 3.46점, 샴푸 린스 적게 쓰기는 평균 3.13점, 세숫물 받아 쓰기는 평균 3.49점, 공공장소 수도물 절약(수도꼭지 잠그기 등)은 평균 3.98점으로 대체로 물 절약 실천 정도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8].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물 절약 의식 및 실천행동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그중에서도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이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하여 취합한 84부 중 최종 78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생활정도, 직업, 가구원수, 주거형태, 수도요금) 9문항과 부모와 자녀의 절수 마인드에 관한 15문항(부모의 절수 마인드 청소년 영향 정도, 부모의 평소 절수 실천 필요성, 부모의 절수 행동 청소년 교육 효과성, 부모의 청소년 절수 습관 교육 필요성, 본인의 절수 마인드 자녀 영향 정도, 본인의 절수 마인드, 본인의 절수 실천 정도, 본인의 자녀 절수 강조 정도, 본인의 향후 자녀 절수 강조 의지, 부모의 절수 마인드, 부모의 절수 실천 정도,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강조 정도,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습관 영향 정도, 자녀의 절수 마인드, 자녀의 절수 실천 정도)으로 총 24문항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회귀분석으로 부모와 자녀의 절수 마인드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했으며, ANOVA와 사후분석으로 집단 간 절수 마인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와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pec.	N	%
성별	남성	32	41.0
	여성	46	59.0
연령	20대 이하	10	12.8
	30대	30	38.5
	40대	26	33.3
	50대 이상	12	1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19.2
	전문대졸	27	34.6
	대졸	26	33.3
	대학원졸	10	12.8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이상)	43	55.1
	중소도시	35	44.9
생활정도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 원 이하	12	15.4
	150-300만원	25	32.1
	300-500만원	18	23.1
	500-700만원	13	16.7
	700만 원 이상	10	12.8
직업	관리자	7	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	15.4
	사무 종사자	16	20.5
	판매 및 기능 종사자	18	23.1
	단순노무 종사자	10	12.8
	학생·전업주부·기타	15	19.2
가구원수	1인 가구	8	10.3
	2인 가구	14	17.9
	3인 가구	25	32.1
	4인 가구	21	26.9
	5인 가구 이상	10	12.8
주거형태	아파트	45	57.7
	주택	23	29.5
	빌라	11	14.1
월평균 수도요금	1만 원대 이하	14	17.9
	2만 원대	28	35.9
	3만 원대	17	21.8
	4만 원대 이상	11	14.1
	잘 모름	8	10.3

5.2 빈도분석

부모와 자녀의 물 절약 마인드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절수마인드 청소년 영향 정도는 4.27점, 부모의 평소 절수 실천 필요성은 4.31점, 부모의 절수 행동 청소년 교육 효과성은 4.33점, 부모의 청소년 절수 습관 교육 필요성은 4.38점, 본인의 절수 마인드 자녀 영향 정도는 4.24점으로 부모의 절수 마인드 및 습관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절수 마인드는 4.00점, 본인의 절수 실천 정도는 3.67점, 본인의 자녀 절수 강조 정도는 3.62점, 본인의 향후 자녀 절수 강조 의지는 4.07점으로 절수 의식은 높으나 실천 정도는 그만큼 높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2> Frequency Analysis

	Spec.	N	%	M
부모의 절수 마인드 청소년 영향 정도	전혀 영향 없음	0	0.0	4.27
	별로 영향 없음	2	2.2	
	보통	12	13.3	
	영향 있음	36	40.0	
부모의 평소 절수 실천 필요성	매우 영향 있음	40	44.4	4.31
	매우 불필요	0	0.0	
	불필요	0	0.0	
	보통	14	15.6	
	필요	34	37.8	
부모의 절수 행동 청소년 교육 효과성	매우 필요	42	46.7	4.33
	매우 효과 없음	0	0.0	
	보통	16	17.8	
	효과 있음	28	31.1	
부모의 청소년 절수 습관 교육 필요성	매우 효과 있음	46	51.1	4.38
	매우 불필요	0	0.0	
	불필요	0	0.0	
	보통	16	17.8	
본인의 절수 마인드 자녀 영향 정도	필요	24	26.7	4.24
	매우 필요	50	55.6	
	전혀 영향 없음	2	2.2	
	별로 영향 없음	0	0	
본인의 절수 마인드	보통	18	20.0	4.00
	영향 있음	24	26.7	
	매우 영향 있음	46	51.1	
	전혀 없음	0	0.0	
	없음	2	2.2	
	보통	24	26.7	
본인의 절수 실천 정도	있음	36	40.0	3.67
	매우 있음	28	31.1	
	전혀 실천 안함	2	2.2	
	실천 안함	4	4.4	
	보통	32	35.6	
본인의 자녀 절수 강조 정도	실천함	36	40.0	3.62
	매우 잘 실천함	16	17.8	
	전혀 강조 안함	6	6.7	
	강조 안함	4	4.4	
본인의 향후 자녀 절수 강조 의지	보통	30	33.3	4.07
	강조	28	31.1	
	매우 강조	22	24.4	
	전혀 강조 안함	2	2.2	
부모의 절수 마인드	강조 안함	2	2.2	4.00
	강조 안함	2	2.2	
	보통	22	24.4	
	강조	26	28.9	
	매우 강조	38	42.2	
부모의 절수 실천 정도	전혀 없음	0	0.0	4.13
	없음	0	0.0	
	보통	22	24.4	
	있음	30	33.3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강조 정도	매우 있음	38	42.2	3.96
	전혀 실천안함	0	0.0	
	실천안함	2	2.2	
	보통	20	22.2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습관에 영향 받은 정도	실천함	32	35.6	3.91
	매우 잘 실천함	36	40.0	
	전혀 강조안함	4	4.4	
	강조안함	2	2.2	
자녀의 절수 마인드	보통	18	20.0	3.65
	강조	36	40.0	
	매우 강조	30	33.3	
	전혀 영향 없음	4	4.4	
	별로 영향 없음	2	2.2	
자녀의 절수 실천 정도	영향 있음	36	40.0	3.50
	매우 영향 있음	30	33.3	
	전혀 없음	8	10.8	
	없음	2	2.7	
자녀의 절수 실천 정도	보통	14	18.9	3.50
	있음	34	45.9	
	매우 있음	16	21.6	
	전혀 실천안함	8	8.9	
자녀의 절수 실천 정도	실천안함	4	4.4	3.50
	보통	22	24.4	
	실천함	20	22.2	
	매우 잘 실천함	18	20.0	

현재 부모의 절수 마인드는 4.00점, 부모의 절수 실천 정도는 4.13점,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강조 정도는 3.96점,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습관에 영향 받은 정도는 3.91점으로 부모의 절수 인식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녀의 절수 마인드는 3.65점, 자녀의 절수 실천 정도는 3.50점으로 자녀의 절수 인식은 본인 및 부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5.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을 보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모든 요인의 Eigen값이 1 이상, 분산의 누적 설명력이 87.720%로 높아 모형이 분석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KMO) 측도가 0.74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p=.000$ 로 모형이 적합한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Variables	Cronbach's Alpha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	0.931	4.027	28.762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	0.800	2.178	44.319
부모의 절수 마인드	0.948	2.174	59.846
자녀의 절수 마인드	0.959	2.129	75.053
본인의 절수 마인드	0.780	1.773	87.720

5.4 회귀분석

현재 본인의 절수 마인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 인식,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 현재 부모의 절수 마인드를 독립변인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1$ 수준에서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본인의 절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 시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beta=.627, p<.001$)였으며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과 현재 부모의 절수 마인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높았다면 현재 본인의 절수마인드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투입변수의 VIF(분산팽창계수)가 각각 1.963, 1.809, 2.285로 10 이하였으며, Durbin-Watson값이

2.241로 0이나 4가 아닌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 및 잔차의 독립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Dependant	β	t	R ²	F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 인식	본인의 절수 마인드	.064	.608	0.519	30.904***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		.627	6.233***		
부모의 절수 마인드		.078	.691		

*** $p<.001$

<Table 5>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절수마인드가 현재 자녀의 절수 마인드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회귀식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절수 마인드는 자녀의 절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현재 본인의 절수 마인드가 높을수록 자녀의 절수 마인드도 높게 형성되며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Dependant	β	t	R ²	F
본인의 절수 마인드	자녀의 절수 마인드	.510	4.957***	.260	24.572***
	향후 자녀에 절수 강조 의지	.657	8.176***	.432	66.847***

*** $p<.001$

5.5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

사후분석을 포함한 ANOVA 실시 결과 최종학력,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파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 원대 이상이 그보다 요금이 낮은 경우보다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성별은 일반적 특성 중 유일하게 현재 본인의 절수 마인드의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절수 마인드가 높았다.

(Table 6) Group Differences of Parent's Importance Perception of Water Saving Mind

Spec.		M	SD	F	Post Analysis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4.28	0.484	5.361**	c>b (Scheffe)
	전문대졸(b)	3.91	0.732		
	대졸(c)	4.59	0.585		
	대학원졸(d)	4.40	0.838		
직업	관리자(a)	4.20	0.991	5.255***	b>c (Dunnett T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b)	4.77	0.321		
	사무 종사자(c)	3.93	0.761		
	판매 및 기능 종사자(d)	4.60	0.516		
	단순노무 종사자(e)	4.10	0.658		
	학생·전업주부·기타(f)	4.30	0.490		
주거 형태	아파트(a)	4.36	0.746	4.092*	a,b>c (Dunnett T3)
	주택(b)	4.64	0.337		
	빌라(c)	3.93	0.566		
월평균 수도 요금	1만 원대 이하(a)	4.02	0.754	3.739**	d>a,b,c (Dunnett T3)
	2만 원대(b)	4.27	0.602		
	3만 원대(c)	4.20	0.736		
	4만 원대 이상(d)	4.93	0.156		
	잘 모름(e)	4.37	0.833		

*p<.05, **p<.01, ***p<.001

(Table 7) Group Differences of One's Water Saving Mind

Spec.		M	SD	F	Post Analysis
성별	남성	3.48	0.693	20.854***	-
	여성	4.19	0.749		

***p<.001

6.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인의 절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 시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beta=.627, p<.001$)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높았다면 현재 본인의 절수 마인드도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절수 마인드는 자녀의 절수 마인드와 향후 자녀에 대한 절수 강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간 절수 마인드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최종학력, 직업, 주거형태, 월평균 수도요금에 따른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 인식과 성별에 따른 본인

의 절수마인드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졸이 전문대졸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사무 종사자보다, 아파트나 주택 거주자가 빌라 거주자보다, 월평균 수도요금이 4만 원대 이상이 그보다 요금이 낮은 경우보다 부모의 절수 마인드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절수 마인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으로 인해 다소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로 자녀의 절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노력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절수 마인드가 자녀의 절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절수마인드의 영향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청소년기 부모의 물 절약 의식 및 행동의 자녀교육 효과성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Focus Company, "61% of People, Our Country is Country of Water Shortage", News release, 2015.
- [2] Ministry of Environment,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eclaration of Practicing Water Loving and Improvement Plans", 2001.
- [3] Byung-Wook Kang, "Energy Saving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 Centering on the cases of the 5th and 6th grade students of Chogye Elementary school in Hapcheon-gun, Southern Gyeongsang Provi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6.
- [4] Joon-Kyu Lee, "Energy Saving Education and the Role of Teachers", Korea Energy Agency, 2003.
- [5] Han-Boon Lee, "A Study on the Education & Awareness for Energy and Energy Saving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6] Hae-Young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others and Teachers to Early Childhood's Environmental Activit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7] Soo-Kyung Kim, "The Effects of Site-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to Develop Young Children's Eco-Friendly Life Habbi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8] Yun-Sun Hong, Jang-Ho Son, "A Study on Understanding, Perception, and Saving Wat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4), pp.143-160, 2010.

윤 석 주(Yoon, Seok Joo)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상담심리) 교육학 박사
- 강원관광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 E-Mail : ysj1159@hanmail.net

김 연 식(Kim, Yeon Shik)



- 현재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 기획정책실장
- 관심분야 : 물환경
- E-Mail : kys8481@naver.com